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⑨ 향로봉



소나무는 향, 봉우리는 향로

향로봉은 북한산의 죽두리봉과 비봉 사이에 있는 봉우리로 북한산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봉우리 모양이 향로처럼 생겨서 향로봉이라 불린다고도 하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고려시대에 응성했던 절, 향림사의 뒷봉우리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구파발 방면에서 보면 사람 옆모습을 닮았다 하여 인두봉이라고도 하고,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졌다 하여 삼지봉이라고도 한다.

안녕? 난 향로봉 소나무. 500년을 살았어. 500년을 살았다고 하니 내가 무척이나 클 것 같지만, 미안, 난 그렇게 크지 않아. 다른 소나무들과 비슷하지, 왜냐? 그게 바로 나의 장수비결이야. 너무 크지 않는 것. 그래야 마구 베어가는 사람들한테서 나를 지킬 수 있지. 이런 지혜는 할아버지한테 배웠어. 아버지는 200살밖에 못 사셨어. 아버지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키를 키웠지. 이 높은 데까지 누가 와서 베어갈까 싶었던 거야. 하지만 산 아래에 있는 큰 소나무들이 다 베어지고 나무가 더 필요하면 사람들은 여기까지 올라 왔단다. 이미 키를 다 키워놓은 아버지는 솜씨도 못하고 잡혀가신 거지. 그래서 난 할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어. 잘생기지도 않고 키도 크지 않게.

내가 아주 어린 묘목이었을 때, 이 바위에 뿌리를 내리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 그때 내가 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셨지. 우리는 척박한 바위에 뿌리를 내리느라 거의 모든 힘을 쏟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어서 봉우리에 살게 된 것을 운이 좋다고 여겼지. 능선 아래로 보이는 넓은 평야와 평화롭게 흐르는 강, 강 끝에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 하늘은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들뜬 풍경은 언제나 아름답지.

우리가 주로 서쪽을 바라본 이유는 할아버지가 바다를 좋아해서야. 할아버지는 바다와 하늘의 빛깔만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는 분이셨어. 할아버지가 뿌리에 단단히 힘을 주라고 하는 날에는 큰 바람이 불며 세찬 비가 오곤 했지. 서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빠르게 밀려오면 할아버지는 새들과 짐승들에게도 안전한 보금자리로 돌아가라고 큰 소리로 일러주셨지. 그러면 짐승들은 서로서로 이야기를 해주며 산 아래에 있는 나무들에게까지 소식을 전해주었지. 가끔 산 아래에 있는 키 큰 나무들이 허리가 똑부러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바람이 열마나 세게 달려오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일 거야. 아무튼 우리 다른 나무들보다 높으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심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비바람에도 더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 내 어린 시절은 하루 종일 할아버지와 함께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날아가는 새들에게 가지를 내어주며 새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도, 쫓기는 짐승들을 숨겨주며 그 보답으로 산속의 소식을 듣는 것도 모두

할아버지에게 배운 것이란다.

할아버지가 아주 젊었을 때 저 강가는 평화롭게 물고기를 잡거나 물자들을 실어 나르는 길이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전쟁터로 바뀌기 일쑤였단다. 참으로 오랫동안 그렇게들 싸웠다더구나.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산으로 숨어들기도 하고, 군사들이 밀려오기도 하면서 이 산에 있는 짐승이나 나무들도 많이 죽었다. 그러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살게 되면서 이 산속에도 많은 건물이 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었다. 여기저기서 크고 멋진 나무들이 베어져 건물 짓는 데로 이용되고, 또 작은 나무가지들은 땀감으로 베어져 갔어. 잘 생긴 소나무들이 먼저 사라지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는 잘생기지도 않고 키도 크지 않게 키를 하신거야. 키는 자그마하고 가지는 낮게.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새들이 편안히 쉬고, 짐승들도 안심하고 숨어 들었던거야.

산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시끄러워졌고, 거기에 견디지 못한 짐승들 대부분이 산을 떠났어. 가끔은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키느라 사람들과 싸우는 짐승도 있었지만, 사람들이란 웬만하면 두려워할 줄 몰랐지.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갑자기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돌을 깨고 성벽을 쌓고 절과 병사들의 숙소를 지어. 북한산성을 쌓기 시작했던 거야. 아! 그때 우리들은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시끄러워서, 사람들은 소란스럽기만 한 게 아니었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건 모두 가져갔어. 그래서 우리를 목숨은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을 만큼 아주 위협했지. 우리는 사람들이 시퍼런 톱이나 도끼를 들고 다가오기만 해도 몸을 움츠리고 그들이 지나가면 빌다가, 그들이 지나가면 휴우~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 그렇게 불안하게 지내던 날, 아버지가 잘려 나가신 거야. 사람들 눈에 뵈만 큼 늙었고 잘생기신 때문이었지. 난 그때 몹시 슬펐지만 목을 움츠리고 슬픔을 참을 수밖에 없었어. 그날부터 나는 더욱 더 나를 낮게 가꾸어 갔어. 그러다보니 외모는 그저 그랬지만 마음속에서 겸손이 자라나게 되었어.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마음속의 겸손이, 화려한 외모보다 훨씬 더 나를 행복하게 해 준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겸손해지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나를 좋아했고, 나를 도와려고 마음을 써 주었거든. 그렇게 백년 쯤 살았을 때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봉우리가 내게 말을 걸었지.

“내가 네 머리위에 있으니 내 몸이 향기로워지는구나. 나는 너를 머리엔 인 향로가 될 테니 너는 향내를 뿜어내는 귀한 향이 되어라. 그래서 이 산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성취되도록 도와주자.”

난 봉우리가 한 말에 감동해서 더욱 더 깊게 뿌리를 내리며, 향로 위에 커진 향처럼 내 몸을 향기롭게 가꾸려고 노력했어.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봉우리나 나는 한 몸이 되었고, 북한산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로봉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단다.

<애기꾼> 박용희

백제 후손 행기 스님의 원력, 면면히 서려



신중일 기자 일본 관서 고찰을 가다

⑨ 나라 도다이지



일본 나라 도다이지(東大寺)의 대불전 전경. 세계 최대 목조건축물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나라대불로 알려진 청동불이 안치돼 있다.



도다이지의 백미인 청동대불. 높이가 16.2m, 얼굴 크기만 5m에 이른다.

도다이지, 일명 동대사(東大寺)는 한국인에게도 친숙한 사찰이다. 나라를 찾으면 꼭 들리는 관광 코스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곳 저곳에 볼 거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희준 명지대 교수는 도다이지를 보고 “이곳을 들리지 않으면 나라에 다녀왔다 할 수 없다. 마치 불국사를 보지 않고 경주를 다녀왔다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16.2m의 세계 최대 청동대불과 수많은 전각뿐만 아니라 도다이지에서는 천 마리의 사슴이 거닐고 있다. 도다이지를 찾는 순례객을 처음 맞아주는 것은 바로 사슴이다. 사슴들은 경내를 유유히 걸으며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때로는 먹이를 줄 것을 종용한다. 표지판에도 사슴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있다. 초식 동물이라 공격성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갑자기 머리를 들이대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도다이지는 남도(南都) 7대 사찰 중 하나이며 화엄종의 본산이다. 745년 쇼무 천황의 발원으로 로벤 스님(良弁, 689~773)이 창건했다. 본존은 비로자나불로 크기 16.2m, 얼굴 길이만 5m로 속칭 ‘나라 대불(大佛)’이라고 한다. 대불이 안치된 ‘다ibu쓰덴(大佛殿)’은 세계 최대의 목조물로 본래는 건물은 화재로 소실됐고 현재 건물은 에도시대에 세워진 것이다.

무엇보다 도다이지의 ‘백미(白眉)’는 청동 대불이다. 높이가 47m에 이르는 전각 안에 16.2m에 이르는 대불이 놓여 있는 모습에 참배객은 압도될 수밖에 없다. 대불을 주위로 형식보살과 금강역사상 등도 그 위용이 대단하다.

이런 청동 대불을 700년대에 세운다는 것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었다. 당대 가장 유명한 불모들과 기술자들이 불상 조성에 온 정열을 쏟았을 것이고, 국민들의 참여도 이어졌다.

함께 순례를 했던 동국대 선행과 교수 보광 스님은 “당시 이 정도의 대불을 조성할 수 있는 기술력



도다이지에 가기 위한 기차역에 세워진 행기 스님의 동상. 행기 스님은 백제 후손이다.

16m 청동대불 위용에 감탄
경내의 삼월당은 숨겨진 보물
행기 스님 삶은 불자의 귀감

은 현재 핵 개발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대형 불사는 당시 백성의 결속을 도모하고 자국의 문화 능력을 타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던 것이다.

도다이지에서 행기당과 삼월당을 찾지 않는다면 도다이지를 모두 본 것이 아니다. 행기당에는 도다이지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구세제민’의 원력을 실천한 행기 스님이 모셔져 있고, 삼월당은 도다이지를 완성시키는 목조건축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월당에 대해서는 유희준 교수의 저서를 살펴보면 그 가치를 알 수 있다.

“삼월당은 다르다. 보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그것은 훌륭한 작품만이 지닌 특권

이다. 이런 삼월당이 있기 때문에 동대사는 디테일이 살아 있는 명찰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적 가치가 적지만 행기당을 둘러보길 권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행기 스님이 백제 도래인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일본에서는 ‘보살’까지 추앙받는 그의 삶이 현대 불자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기 때문이다.

행기 스님은 도다이지 건립 당시 대불 건립 기금을 권선했던 역할을 맡았다. 그렇다고 해서 행기 스님을 정권에 기댄 인물이라고 선불리 재단해서는 안된다. 15세 출가해 20년을 수행한 행기 스님은 포교활동에 자신의 모든 원력을 쏟아부었다. 교각과 제방, 고아원, 도량 등 사회 제반 시설을 건립해 민중을 도왔고 스님을 좇아 제자가 된 사람들이 수 천명에 이르렀다. 과거나 현재나 명망있는 재야 종교인을 그늘리지 않았다. 당시 아마도 정권은 행기 스님을 욕에 가두는 등 탄압했으나, 그의 대중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대불 기금을 권선하는 중책을 행기 스님에게 부탁했고, 대불 조성 불사는 원만히 회향하게 된다. 이런 공로로 행기 스님은 대승정에 지위까지 올랐으며 현재까지도 그를 보살로 추앙하고 있다.

실제 스님의 고향에는 행기 스님에 대한 박물관이 있으며 도다이지에 가기 위한 기차역 광장에는 행기 스님을 기리기 위한 동상도 세워져 있다.

민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그래서 정권의 탄압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았던 행기 스님의 삶은 오늘날 불자들이 가져야 할 화두이다. 도다이지는 그런 행기 스님이 원력과 삶이 면면히 내려오는 도량이다.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병고로 시름하는 모든 분들이 약사여래부처님 신앙으로 병마로부터 벗어나기를 발원합니다

“병고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약사여래부처님이 상주하고 계시는 현지사 고성분원 약사성전으로 오십시오”

증생의 병고에는 몇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지요? 사대가 조화되지 않아서 오는 병은 병원에 가면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업의 과보로 오는 업병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또 귀신이 붙은 병은 못 낫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붙었던 업병이건 사대의 조화가 되지 않아서 왔건 간에 약사부처님한테 오면 문제가 해결 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약사부처님이 계시는 이 약사궁을 찾아오라 그거예요. 기도도 붙이고, 오늘과 같이 약사재일날 함께 공양도 올리고 해라 그거요. (2013년 10월 12일 약사재일 자제만현 큰스님 소참법문 중에서)



약사삼존불을 봉안하는 점안식 - 약사여래부처님과 좌우보처 일광불 일광변조보살님 월광불 월광변조보살님께 스님들이 공양을 올리고 있다

사고사할 뻔한 남편이 약사부처님 가피로 기적처럼 소생하다

리모콘의 오작동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기계 중간에 몸이 끼어서 모든 장기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갈비뼈가 8대 부러졌고 콩팥, 폐, 간, 위 등이 완전히 손상되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이었습니. 약사여래부처님께 첫 번째 공양을 올리고 나자 마음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 . .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사고가 난 지 25일만에 의식이 돌아왔고, 중환자실에서 45일만에 일반병실로 옮기고 10일 정도 더 치료했습니다. 지금은 창원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고, 음식도 잘 먹고, 말도 잘 하고 정상인처럼 되었습니다. 의사도, 환자의 처음 상태를 본 주위사람들도 이걸 기적이라고 말할 합니다. (2012년 4월 20일 창원에서 정경숙)

- 현지사 홈페이지 '신행담' 중에서



약사재일 - 매일 음력 8일 (9시 30분) 봉행합니다.
약사여래부처님 공양·기도 접수받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대진항길 7 팩스 033)681-5538
영산불교 현지사 고성분원 약사성전 전화 033)681-5515

※ 약사재일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심을 선언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영산불교 현지사 광명 만덕·자재 만현)